200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노아, 다니엘, 욥—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본들

메시지 18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며, 하나님에 의해 벗겨지고 소모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이 됨

성경: 겔14:14, 20, 히11:7, 창6:13-14, 단1:8, 4:26, 32, 34-35, 2:19, 7:1, 13-14, 8:15상, 욥1:1, 8, 19:9-10, 42:5-6

I.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지시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히11:7상.

A.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인 교회의 예표이다—창6:13-14, 벧전3:20-21, 마16:18, 고전12:12, 엡2:15-16, 골3:10-11.

B. 방주를 지은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예표하는데, 이러한 건축은 건축 재료인 그리스도의 풍성들의 요소로 된다—창7:1, 고전3:12상, 엡3:8-10, 4:12.

C. 노아는 자기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히11:7, 창6:22.

D.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 세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었다—창6:13.

1. 노아는 그 시대의 경향에 맞서서 "세상을 정죄했다"—히11:7.
2. 오늘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대의 조류 가운데 있지 않고 신성한 계시에 따라 보좌로부터 흐르는 흐름 안에 있다—계22:1.

E.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경륜의 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고전15:58, 16:10, 골4:11.

1.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일—몸의 일—이 있다—2:19, 엡4:12.
2.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이며, 인간적인 일의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몸은 타고난 방법이나 인간적인 일의 조직에 의해 건축되지 않는다—엡4:16.
3.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몸의 일인 하나님의 경륜의 일이다—골2:19, 엡4:12, 16.
4.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하나를 볼 때마다 또한 일의 하나를 볼 것이다" (*워치만니 전집* 제37권 영문판 244쪽).
5. 우리는 '불법의 일꾼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마7:21-23, 참조 13:41, 롬6:19, 살후2:3, 7-8, 요일3:4.

II.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늘이 다스리시는 줄", "그 비밀이 밤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계시되었으니"—단1:8, 4:26, 2:19.

A.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의 음식으로 취하였으므로 하나님과 하나였다—1:8-16.

1.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을 접촉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조성이 되는 것이다—창2:16-17.
2. 다니엘에게 느브갓네살의 진미는 사실상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다—단1:8, 창2:16-17.
3. 우리가 경건한 음식—하나님-음식, 즉 우리의 음식이신 하나님—을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다—마4:4, 요6:57.
4.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떡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마15:26-27, 32-37.
   a. 주 예수님은 순종의 왕국이시다(빌2:8). 우리는 우리의 떡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 안으로 역사해 들어오시게 해야 한다.
   b.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수록 왕의 성분이 더욱더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 속에서 다스리는 요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왕국이신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게 한다—단2:34-35, 44-45.

B.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옛창조를 종결하시고 새 창조를 발아시키시며 인간 정부의 총체를 쳐서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게 한다는 것이다—4:26, 32, 34-35, 2:34-35, 44-45.
1. 그리스도를 으뜸 되시게(골1:18)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로 돌아와 직접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과 권위 아래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신다 —마3:17, 6:33, 8:5-12.
3. 하늘이 다스리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28:20.

C. 다니엘의 신실함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상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와 올바른 각도를 그에게 주었다—단2:19, 7:1, 13-14, 8:15상.

III.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왕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19:9-10, 42:5-6.

A. 욥이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성실함 가운데 도달한 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게 할 수도 없었다—1:6-8, 2:1-3, 27:5, 31:6, 32:1.

B.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소모시키고 그가 도달한 것, 그가 획득한 것, 순전하고 정직한 최고 수준의 윤리를 그에게서 벗기는 것이었다—19:9-10.
1.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의 순전함과 정직함 가운데 있는 타고난 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안에서 새로워진 욥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1:6-8, 2:3-6.
2.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소모시키시는 것은 욥을 무너뜨리시어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하실 근거와 길을 얻으심으로, 욥이 신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엡3:16-21.
3.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겨지고 소모되었는가에 따른 것이다—고후4:16.
4.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고 소모시키심을 통해,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1:8-9, 13:14.
5.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해를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표현되시어,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

적을 이루시려는 것이다—창1:26.

C.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벗겨지고 소모된 후 하나님을 볼 것이다—욥42:5, 고후3:18, 히12:14, 계22:4.

1.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조성되지만, 신격에는 조금도 참여할 수 없다—요1:12-13, 벧후1:4.
2.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본성과 생명과 요소와 본질과 존재를 갖는다—마5:8.
3.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하여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 그분을 대표하게 한다—**고후3:18**
4. 결국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욥이 본 하나님은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단계를 통과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날 것인' 하나님이셨다—욥42:5.
5. 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는 '요리되신' 하나님, 과정을 거치시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요6:57, 4:14, 20:22.
6.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완결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7:39, 고전15:45하.
7.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으로 조성되게 하신다—6:17, 12;12.

D.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즉 그분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그분의 택함받고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마음의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엡4:4-6, 16, 계21:2, 10-11.

© *2005 Living Stream Ministry*